

▶ '무주 산골영화제' 폐막... '행복했던 영화소풍, 내년엔 다시...'

공연 · 전시 · 체험 어우러져 관객들 사로잡다

한국 장편경쟁 '창' 섹션
출품된 작품 대상 시상식 열어

뉴비전상에 '재꽃' 박석영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선정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가 6일, 4박 5일 간의 행복했던 영화소풍을 끝냈다. 무주에체 문화관 2층 산골영화관 만디관에서 개최된 이날 폐막식에는 황정수 조직위원장과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산골친구들과 감독, 배우, 그리고 일반 관객작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폐막의 아쉬움을 달랬다. 참석자들은 무주에서 진행된 지난 5일 간의 영화소풍의 여정을 되짚어보는 영화제 스케치 영상을 시청하고, 한국 장편경쟁 부문 '창' 섹션에 출품됐던 영화들에 대한 시상식에 함께 했다.



무주 산골영화제 기간인 지난 5일, 한국 장편경쟁 부문 '창' 섹션에 출품됐던 영화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 취하고 있다.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영화 '아기와 나 - 감독 손태겸'가 이야기기를 풀어가는 솜씨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북영화비평포럼 회원들이 주는 전북영화비평포럼상(상금 3백만원)을 수상했다. 용산창시의 비극을 다룬 다큐멘터리 '공동정범 - 감독 김일란, 이혁상'은 무주에 거주하는 영화 애호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로부터 무주관객상(상금 2백만원)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올해는 선택의 간격을 줄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작품들이 많았던 자리였다"며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통해 한국영화 발전에 기반이 될 만한 가능성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는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는 지난 6월 2일부터 6일까지 무주를 예체문화관(대공연장, 산골영화관)을 비롯한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과 등나무운동장, 전통문화의 집, 안성면 두문마을과 무주읍 서면마을 일원

'휴양영화제' 기간동안
한영애 · 킹스톤 루디스카 등
펼치는 장르음악 공연
낙화놀이 등 행사도 펼쳐져

등나무운동장에서
산골공방 마린 추억 선사
먹거리 장터도 제공

에서 개최됐으며, 개막작 '레게 이나 필름, 흥부'를 비롯한 총 30개국 72편의 영화와 함께 가수 한영애와 밴드 '남버윈 코리아', 밴드 '킹스톤 루디스카' 등이 펼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 그리고 낙화놀이와 반달놀이 신비탐사, 극장전 등 전시회 등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잔디구장인 등나무운동장에는 산골도서관과 함께 담쟁이, 켈리, 바느질 등을 체

합해볼 수 있는 산골공방이 마련돼 다양한 추억을 선사했으며 무주군민들이 직접 참여했던 먹거리 장터와 농·특산물 판매장이 영화소풍길에서 즐거움을 배가시킨 명소로 꼽혔다. 관객객 최모(48, 천안)씨는 "초록 무성한 숲 속에 누워 영화를 보고 남달린 시선 의식하지 않은 채 춤을 추며 즐기는 공연에 대한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여러 지역에서 하는 수많은 영화제를 다녀왔지만 영화 이외에 산골 무주에 가진 시·공간이 어우러져 풍겨내는 분위기는 정말 독특"이라고 전했다. 황정수 조직위원장은 폐막사를 통해 "4박 5일 간의 소풍 길 내내 든든한 길동무가 돼주셨던 관객 분들과 감독, 배우, 산골친구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산골영화제는 앞으로도 몸과 마음이 쉬 수 있는 휴양영화제, 무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자연영화제, 무주니까 가능한 산골공방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회서 9일까지 전북대 유비비 교환교수 초대전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환교수인 류비비 중국 광저우대 교수가 국회에서 자신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류 교수는 (사)한중문화협회가 주최하고 이종걸 국회의원실 주관하는 초대전에 참여해 5일부터 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로비에서 초대전을 갖고 있다. 지난 3월 전주 교동아트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담은 중국화를 선보인 이후 한국에서 두 번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류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역시 다양한 중국화 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담은 28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꾸밈없는 소소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단순하지만 깨끗한 내면을 갖길 바라는 마음을 작품에 담았다. 때문에 국회의원 회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소소한 기쁨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중국의 문화 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져 온 (사)한중문화협회가 류 교수를 공식 초청하며 이뤄진 것. 이를 통해 한·중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욱 돈독한 우의 다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국비 공연 유치 선정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박성일)은 문화 복지에 앞장설 '문화이장'을 오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문화이장'은 예술가와 함께 미적 체험·문화적 소양을 키우는 예술워크숍 및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반상회를 개최하여 완주군내 문화소외(축제·공연·전시)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군민들의 문화수요와 생활문화정책을 발굴하는 등 문화예술홍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참가자격은 완주군 13개 읍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해당 마을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이 있으면 응모 가능하다. 모집인원은 읍면별 1명씩 총 13명으로, 선정은 서류심사(주민추천·문화예술활동 경력·사무경력·온라인 운영 등) 배점기준에 따라 상위 점수자 순으로 선발된다. /정해은 기자

▶▶ 공연 전시 ◀◀



도립국악원 '청의 울림', 내일 소리문화전당서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의 2017 목요일국악예술무대 '청의 울림'이 8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린다. 청의 울림은 국악원 관현악단원들이 산조와 병주를 통해 우리 음악의 진면목을 펼쳐 보이는 무대로 연주자들의 손을 거치며 발전된 다양한 표현기법의 곡을 감상할 수 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예매는 홈페이지(http://www.kukakwon.or.kr)를 통한 사전 예약제이다. 예약을 하지 못한 경우, 공연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오후 6시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잔여석을 배부 받을 수 있다. /정해은 기자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오는 9일 오후 7시30분 국립원예음원·예원당에서 제3회 대한민국 민속악축제 '가, 그 깊이에 스미다' 두 번째 공연을 갖는다. '가, 그 깊이에 스미다'는 명창의 무대로 신영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예능보유자)·김혜란(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경기민요 전주교육교조)명창이 출연한다. 신영희 명창은 2013년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춘향가' 보유자로 인정됐다. 그가 부르는 춘향가는 김소희에게 전수받아 다듬은 판소리 한 바탕으로 타고난 순발력과 재치·작창 능력이 뛰어나

'가, 그 깊이에 스미다' 신영희·김혜란 명창 출연



신영희 명창



김혜란 명창

다. 또한 깊고 무게감 있는 통성이 특징적이며, 남성적인 소리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다. 신 명창은 판소리 다섯마당 중에 문학성과 예술성이 가장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며 대중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춘향가 중 '사랑가'를 들려준다. 고수는 국악원 지도단원 서은기가 맡는다. 김혜란 명창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전수교육교조로 인정됐다.故 안비취 명창에게서 소리를 사사했다. 또한 2009년에는 서울로 12거리를 서울 정도 600년 기념 공연 무대에 올려 극찬을 받은 바 있다.

창작에도 관심이 높은 그는 국악창작 가요와 국악동요·소리극·작창곡 등을 녹음한 음반을 발표해 예술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김 명창은 감정표현이 부드럽고 가락이 서정적이며, 밝고 경쾌한 특징을 가진 경기민요 무대를 선보인다. 금강산타령·노랫가락·청춘가·창부터령·한오백년 등 다양한 경기민요의 매력을 전한다. 이날 공연의 반주는 국악원 기악단이 담당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문의 및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과 전화(063-620-2328)로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시제품 생산

기술, 정보제공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업지원

지식재산권

연구용역 수행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염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54888]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639번지 (서동로 594)
Tel. 063) 830 - 3576 Fax. 063) 830-3540 www.kictex.re.kr

※ 상기 교육은 기업현황에 따라 상세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

※ 본 교육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주축산업육성사업 복합섬유소재산업 역량강화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됩니다.